

한국판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홍 상 황†

진주교육대학교

유 현 실

사천 문선초등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Moos(1993)의 CRI-Youth의 문항과 더불어 한국 청소년실정에 맞는 문항을 추가하여 예비문항을 작성하여, 중·고등학생(N=205)에게 실시한 후 최종 48 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한 문항을 중·고등학생(N=999)에게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48문항의 8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62~.83의 범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9~.75의 범위이었다. 그리고 요인분석 결과 접근적 대처반응과 회피적 대처반응이라는 2요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8개 척도점수와 여러 타당도지표와의 상관을 구한 결과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청소년 대처반응검사가 학교 및 상담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주요어 : 대처반응검사, 청소년, 신뢰도, 타당도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진주교육대학교 가정학술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상황, 진주교육대학교,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

Tel : 055-740-1294, E-mail : shhong@cue.ac.kr

인간은 살아가면서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심리적 외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발달적 이행기로 신체적·인지적·사회정서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에 그에 따른 스트레스의 양 또한 상당한데 Compas(1987), Comerici와 MacDonald(1990)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그들의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스트레스 사상에 노출되어 있다. 즉, 주요 생활사건, 생활의 변화, 성숙요인, 만성적 요인, 일상적인 분쟁 및 갈등 등이 모두 스트레스 사상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연구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존재 유무나 스트레스 경험 정도는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스트레스 사상에 대한 그들의 대처능력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Lohamn & Jarvis, 2000; Unger et al., 1998; 이은주, 1998).

또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만 영향력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Dumont & Provost, 1999; Folkman & Lazarus, 1980; 김정희, 1987; 이은주, 1998). 이것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다른 요인 즉, 자기 존중감, 내적 통제능력, 대처반응과 같은 개인 및 사회적 자원에 의해 중재 또는 조절되기 때문이다. 즉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가출을 비롯한 위험행동의 선택비율이 높고 우울, 신체건강의 악화, 알코올 및 약물사용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 지지 자원과 더불어 대처반응의 중재 효과를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Cohen & Wills, 1985).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서 대처행동은 중요한 중재변인이다. 대처(coping)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강요한다고 평가되는 내외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Lazarus & Folkman, 1984), 또는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Kliewer, 1991)으로 정의되고 있고, 대처반응(coping response)이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인이 선택하거나 개발하여 실행한 구체적 행동을 말한다.

개인은 일상의 소소한 스트레스에서부터 심리적 외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활사건을 겪는다. 많은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 자체는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바꾸려는 시도는 대개 실패로 끝난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이다. 이러한 대처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매우 다양한 반응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그 개인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처와 관련한 개인차와 그 결과는 심리학에서 중요한 연구주체이고, 모든 사람이 전부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대처반응이 가능하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인 대처반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처반응이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복지와 정신적 건강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Felton & Revenson, 1984; Scheier & Carver, 1985).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을 경우 심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지만 대처능력이 떨어질 경우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Abramovitch, Schreier & Koren, 2000). 그리고 스트레스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당면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 지가 부적응의 치료나 예방적 개입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이후의 적응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문성원, 한종철, 1996). 또한 대처반응의 선택은 개인이 자신에게 유용한 자원과 스트레스 사상의 크기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달려 있다(Unger et al., 1998).

일반 청소년 집단과 우울, 불안 및 품행장애 등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 간의 대처반응의 차이를 연구들에서 두 집단 간에 주로 사용하는 대처반응에의 차이가 있고(Moos, 1993; Moos & Schafer, 1993; Schaefer & Moos, 1992), 상담 및 심리치료를 종결한 청소년에 대한 추적연구에서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대처반응의 유형이 상담 및 치료의 성과를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Ebata & Moos, 1992).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처반응 유형을 밝힐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대처반응검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용에 제한점이 있는데 첫째, 정서 지향-문제 지향적 대처반응 또는 접근-회피적 대처반응과 같이 대처반응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Lazarus & Folkman, 1984; Roth & Cohen, 1986; 한건환, 장휘숙, 안권숙, 2004) 둘째, 이론적 배경이 서로 다른 대처 척도들에서 몇 개의 문항들을 단순히 조합하여 척도를 구성하여 구성 타당도에 문제가 많은 도구가 사용되고 있으며(Rhode, Lewinshon, Tilson & Seeley, 1990), 셋째,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고등학교 모두가 아닌 중학생용 또는 고등학생용만으로 개발된 경우가 있다(김교현, 전경구, 1993; 박용천, 김광일, 2000). 이에 반해 Moos(1993)에 의해 개발된

CRI-Youth(Coping Response Inventory for Youth)의 경우 청소년이 사용하는 다양한 대처반응을 명확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8가지 대처반응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청소년이 나타내는 다양한 대처반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할 뿐만 아니라 성인에 비해 신체, 인지 및 사회적 기술이 아직 미숙하고 사회적 지지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의 대처반응을 효과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처반응의 분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문제중심 또는 정서중심 대처와 같은 대처의 방향(focus of coping in stressor)이나 인지적 또는 행동적 대처와 같은 개인이 실제로 사용한 대처 방법(method of coping people employ)중 하나의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대처반응을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Compas, 1987; 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Folkman & Lazarus, 1985; Lazarus & Folkman, 1984; Roth & Cohen, 1986), CRI-Youth는 이들 두 가지 개념적 접근을 모두 사용하여 대처반응을 분류하였다.

CRI-Youth는 개인이 스트레스 사상에 대처하는 방향을 조사 및 관찰하여 이를 접근과 회피 반응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실제로 사용한 대처수단에 따라 인지적, 행동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접근적 대처는 문제중심적인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사상을 다루거나 해결하려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포함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회피적 대처는 정서중심적인 경향이 있다. 즉 스트레스 사상이나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시도를 말한다. 8개 척도 중에서 논리적 분석(LA), 긍정적 재평가(PR), 지도 및 지지 추구(SG), 문제해결(PS)의 4개 척도는 접근적 대처반응, 인지적 회피

(CA), 받아들임 또는 체념(AR), 대안적 보상 추구(SR), 정서표출(ED)의 4개 척도는 회피적 대처반응에 해당된다(표 1). 그리고 표 1의 접근과 회피적 대처반응에 해당되는 4개 척도 중 앞의 2개 척도는 인지적 대처반응, 뒤의 2개 척도는 행동적 대처반응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대처반응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핵심적인 대처반응을 밝히는데 유용한 검사인 CRI-Youth를 활용한다면 청소년들이 실제로 즐겨 사용하는 대처반응을 쉽게 알 수 있고,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한 대처반응이 적응 및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CRI-Youth는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장애의 치료와 재발 과정과 관련 있는 위험 및 방해요소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비행 청소년 및 심각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불어 CRI-Youth는 건강한 청소년과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대처반응의 차이, 대처반응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스트레스사상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표 1. CRI-Yoyth(원판)의 척도 구성과 설명

척도	설명
접근적 대처반응	
논리적 분석 (Logical Amalysis; LA)	스트레스인과 그 결과를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려는 인지적 시도
긍정적 재평가 (Positive Reappraisal; PR)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한 인지적 시도
지도와 지지 추구 (Seeking Guidance and Support; SG)	정보, 안내 또는 지지를 추구하기 위한 행동적 시도
문제해결 (Problem Solving; PS)	문제를 직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동적 시도
회피적 대처반응	
인지적 회피 (Cognitive Avoidance; CA)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인지적 시도
받아들임 또는 체념 (Acceptance or Resignation; AR)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거나 체념하려는 인지적 시도
대안적 보상 추구 (Seeking Alternative Rewards; SR)	대안적인 행동에 관여하고 새로운 만족원을 찾으려는 행동적 시도
정서표출 (Emotional Discharge; ED)	부정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감소시키려는 행동적 시도

(Aguilar-Vafaie & Abiari, 2007; Hamdan-Mansour, Kim, Puskar & Amer, 2008; Hampel & Petermann, 2005; Moos, 1988, 1993; Moos & Schafer, 1993; Moos, Brennan, Fondacaro, & Moos, 1990; Schaefer & Moos, 1992).

그러나 CRI-Youth가 미국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검증되어 상담 및 학교장면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미국 청소년의 대처 반응 및 문화가 반영되어 제작된 평가도구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CRI-Youth가 우리 문화권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우리나라 청소년 특유의 대처반응을 반영하여 검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핵심적인 대처반응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알려진 Moos(1993)의 청소년 대처반응검사(CRI-Youth)를 한국 청소년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한국판 청소년 대처반응검사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일반 청소년 표본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예비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최종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J시 소재 중·고등학생 212명(남 109명, 여 103명)을 대상으로 예비척도를 실시하고, 이 중 성별, 학년,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누락문항 수가 5%이상인 자료 7부를 제외한 205명(남 105명, 여 100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최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표 본					
	I	II	III	IV	V	VI
n	163	173	175	158	166	164
여학생수	98	107	106	36	101	86
(%)	(60.1)	(61.8)	(60.6)	(21.3)	(60.8)	(52.4)
중학생수	113	72	77	86	97	86
(%)	(69.3)	(41.6)	(44.0)	(50.9)	(58.4)	(52.4)
평균연령	14.67	15.81	15.06	15.09	14.27	14.82
(SD)	(1.38)	(1.12)	(1.65)	(1.30)	(1.40)	(1.51)

주. 6개 표본에 모두 청소년 대처반응검사를 실시하고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표본별로 1~4 가지 지표를 더 실시하였음: 표본 I은 우울척도, 불안척도, 삶의 만족도질문지, 표본 II는 K-YSR 비행척도, 학교적응척도, 표본 III은 생활스트레스척도, 표본 IV는 또래관계기술척도, 공격행동척도, 표본 V는 문제해결척도, 인터넷과다사용 자가진단척도, 스트레스 대처전략척도, 표본 VI은 다차원적 대처척도를 실시하였고, 표본 VI을 대상으로 6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 산출을 실시하였음.

중적으로 구성된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신뢰도,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인천,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4개 중·고등학교 1,058명을 대상으로 6개의 타당도지표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인구통계학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999명의 자료를 통계처리 하였다. 타당도지표의 수와 포함되는 문항의 수가 많아서 표 2와 같이 6개 표본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행 청소년 표본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 간의 대처반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수감중인 비행청소년 57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처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인구통계학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520명의 자료를 통계처리 하였다. 비행청소년 표본의 남학생은 245명, 여학생 275명 모두 중학생이며 평균연령은 14.13세($SD=1.38$)이었다.

연구도구

측정도구

원판(미국판)인 Moos(1993)의 CRI-Youth를 연구자와 초·중등교사 경력 5년 이상인 교사 4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한국어 번역 작업을 실시한 뒤 서로의 번역을 비교, 문항을 도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미상 차이가 있는 문항들은 공동으로 번역하여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읽고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문항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번역된 문항들을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2중 언어 구사자가 영

어로 역번역을 하여 대조하였다. 이 때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의미가 다르거나 한국의 특수성과 청소년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예비문항(예, 기분을 풀기 위해 음식을 먹었습니까?)을 척도별로 1~4개 더 추가하여 예비척도를 구성하였으며, 그 후 연구자와 초·중등교사 경력 5년 이상인 교사 4인이 2차례에 걸쳐 문항번역회의를 통해 문항의 의미를 정교화 시키고 포괄적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어전공 대학교수가 영어와 한국어의 의미상 차이가 있는 문항들을 2차례에 걸쳐 다시 수정하여 66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예비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66문항의 예비척도를 중·고등학교 212명(남 109명, 여 103명, 중학생 117명, 고등학교 95명)에게 실시하여 이 중 성별, 학년,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누락문항 수가 5%이상인 자료 7명을 제외한 205명(남 105명, 여 100명, 중학생 112명, 고등학교 9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척도 구성을 위하여 문항의 문항-하위척도전체 상관(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제거 지수(alpha if item deleted), 문항 변별도(item discrimination), 문항 정보량(item information function)의 문항 양호도 관련 통계치를 고려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은 제외하여 최종 48 문항, 8개 척도, 각 척도별 6문항으로 구성된 최종척도를 구성하였다(부록). 이때 문항 변별도와 문항 정보량은 MULTILOG 7.03(Thissen, Chen & Bock, 2003)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최종척도를 중·고등학교생표본 및 비행청소년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등을 알아보았다.

타당도지표

스트레스 대처전략척도(Brief COPE). 스트레스에 대한 다차원적 대처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Carver(1997)가 개발한 Brief COPE질문지(Brief Coping Orientation to the Problems Experienced)를 정주리(2007)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김정수(2008)가 우리나라의 청소년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알코올 사용, 자기 비난, 부인, 유머 사용, 종교 추구, 기분 전환의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수(2008)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62~.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는 .66~.95이었다.

다차원적 대처척도.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대처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대처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전경구 등(1994)이 개발한 다차원적 대처척도를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15가지 대처방식(적극적 대처, 소극적 철수, 정서표출, 적극적 망각, 고집, 긍정적 해석, 긍정적 비교, 동화, 체념, 정서적 진정, 자제, 자기비판, 문제해결적 지원추구, 정서적 지원 추구, 종교적 추구)을 측정하고 있다. 다차원적 대처척도는 원래 15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후속 연구들(전경구, 강혜자, 류준범, 2000; 이진아, 김영환, 2001)에서 정서적 진정과 소극적 철수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정서적

지원추구와 문제해결적 지원추구는 동일한 요인으로 나타났기에 12개의 척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12개의 척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진아와 김영환(2001)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71~.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는 .65~.95이었다.

문제해결검사. 개인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사고, 감정을 지각하고 행동하는지와 관련된 문제해결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Heppner와 Petersen(1982)이 개발하고 임현우, 이동귀, 박현주(2004)가 번안한 문제해결검사(The Problem Solving Inventory: P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접근-회피 성향, 개인의 통제력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Heppner와 Petersen(198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전체척도는 .90, 하위 척도는 .72~.85이었고, 임현우, 이동귀, 박현주(2004)의 연구에서 전체척도는 .89, 하위척도는 .63~.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는 전체척도는 .80, 하위척도는 .70~.79이었다.

학교적응척도.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과 학교생활에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용래(2000)가 개발한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용래(200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

출된 내적합치도도 .95이었다.

또래관계기술척도. 또래관계기술척도는 구체적인 행동을 기술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행동적인 수준에서의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는 척도(Peer Relational Skills Scale: PRSS)로 양윤란·오경자(2005)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도성과 협동/공감의 두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총 19문항으로 행동의 빈도를 묻는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기술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양윤란과 오경자(2005)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척도는 .83, 주장성, 협동/공감은 .78,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척도, 주장성, 협동/공감의 내적 합치도는 .86, .78, .82이었다.

삶의 만족도 질문지.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당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하나에 문항에 대해 0~10점 사이에서 평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Veenhoven와 Piet(1995)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국가 간의 비교를 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한 방법이다.

우울검사.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하여 배유진, 홍상황(2009)이 개발한 아동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한 배유진, 홍상황(2009)의 결과에 따르면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90, 내적 합치도는 전체 척도는 .97, 하위척도는 .88~.95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내적 합치도를 계산한 결과 전체 척도는 .95, 하위척도는 .88~.94이었다.

불안검사. 아동용 불안검사는 Reynolds와 Richmond(1978)가 Castenada 등(1956)이 개발한 아동용 표현불안척도(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CMAS)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불안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이다. 이 검사는 특성불안의 측정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사용 가능하며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대해 예, 아니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이 중 28문항은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9문항은 허구척도(lie scale)에 속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1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28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5이었다.

K-YSR 비행척도. Achenbach(1991)가 11~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Youth Self Report, YSR)를 오경자 등(2001)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K-YSR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12개의 척도, 1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

소년의 비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제행 동증후군 척도 중, 비행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공격행동척도. Orpinas와 Frankowski(2001)의 공격행동척도를 장휘숙(2002)이 우리나라 중학 생을 대상으로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사 람들에 대한 외현적인 공격적 행동의 빈도를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행동을 더 많 이 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Orpinas와 Frankowski (2001)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고 장휘숙(2002)의 연구에서는 .80이었다. 본 연구 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내적 합치도를 계산한 결과 전체 11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2 이었다.

인터넷 과다사용 자가진단척도(K 척도). 인터넷 과다사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 문화진흥원(김청택 등, 2002)에서 개발한 한국 형 인터넷 과다사용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많이 사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김 청택 등, 2002)가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96이 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합치도는 .93 이었다.

생활스트레스척도. 청소년이 경험하는 생 활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교현과 전겸구(1993)가 개발한 생활스트레스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4문항으로 구성된 3 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 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교 현과 전겸구(1993)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는 .90,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합치도는 .95

이었다.

자료처리

수집한 자료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대상청소년이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신상정보 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본 연구에서 사 용할 여러 개별 척도별로 척도문항의 5% 이 상을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윈 도우즈용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척도의 신뢰 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 검사 신뢰도를 구하였다. 둘째, 척도의 타당도 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밝히기 위 해 여러 가지 타당도 지표와의 상관을 구하였 다. 그리고 문제해결력, 또래관계 기술, 학교 적응,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8개 척도점수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 제해결력, 또래관계 기술, 학교적응, 우울, 불 안 및 스트레스의 각 척도별 점수의 고저에 따라서 두 집단을 선정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8개 척도점수가 성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2-way ANOVA) 을 실시하였고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척도점수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도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8개 척도의 내적 합 치도는 표 3과 같다. 중학생(N=531, 남 257,

표 3. 청소년 대처반응검사 8개 척도의 내적합치도

(N=1,519)

척도	중학생			고등학생			비행 청소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n=257)	(n=274)	(n=531)	(n=208)	(n=260)	(n=468)	(n=245)	(n=275)	(n=520)
논리적 분석(LA)	.76	.74	.75	.71	.70	.70	.78	.74	.76
긍정적 재평가(PR)	.72	.72	.72	.70	.77	.74	.73	.79	.76
지도와 지지 추구(SG)	.79	.82	.82	.80	.83	.82	.81	.81	.81
문제해결(PS)	.78	.81	.80	.79	.78	.79	.79	.80	.79
인지적 회피(CA)	.68	.67	.68	.70	.70	.70	.67	.66	.67
받아들임 또는 체념(AR)	.70	.67	.68	.64	.69	.67	.69	.70	.70
대안적 보상 추구(SR)	.74	.72	.73	.68	.63	.65	.72	.76	.74
정서표출(ED)	.67	.62	.64	.70	.62	.65	.70	.66	.68

여 274명), 고등학생(N=468, 남 208명, 여 260명) 및 비행 청소년 표본(N=520, 남 245명, 여 275명)에 대한 Cronbach α 값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급, 성별, 비행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구한 Cronbach α 값은 .62~.83의 범위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3). 또 청소년

대처반응검사 척도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청소년 표본에 속한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164명(남 78명, 여 86명)을 대상으로 6주 간격을 두고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59~.75의 범위로 8개 척도 모두 $p < .01$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척도의 1차, 2차 시

표 4.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N=164)

척도	1차 검사 M(SD)	2차 검사 M(SD)	검사-재검사 신뢰도(r)
논리적 분석(LA)	8.29(2.83)	8.72(2.85)	.67**
긍정적 재평가(PR)	6.52(3.36)	7.64(3.21)	.59**
지도와 지지 추구(SG)	4.47(3.41)	5.05(3.87)	.66**
문제해결(PS)	5.60(3.34)	6.73(3.25)	.69**
인지적 회피(CA)	6.39(3.35)	6.72(3.45)	.60**
받아들임 또는 체념(AR)	5.68(3.60)	6.06(3.73)	.75**
대안적 보상 추구(SR)	7.66(2.72)	8.42(3.46)	.64**
정서표출(ED)	5.58(2.74)	6.00(2.90)	.67**

** $p < .01$

기별 평균, 표준편차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Moos(1993)에 따르면 청소년 대처반응검사는 2요인 구조로 이루어져있고, 1요인은 접근적 대처반응 요인으로 논리적 분석(LA), 긍정적 재평가(PR), 지도와 지지 추구(SG), 문제 해결(PS)의 4개 척도, 2요인은 회피적 대처반응 요인으로 인지적 회피(CA), 받아들이м 또는 체념(AR), 대안적 보상 추구(SR), 정서 표출(ED)의 4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청소년 대처반응검사가 Moos(1993)가 개발한 원판검사의 구성 개념과 이론적인 내적 구조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8개 척도를 대상으로 척도 수준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일반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주축 분해방법과 요인 간의 상관을 가정하는 오블리민(oblimin)회전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판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에서도 2요인 구조가 지지되었으나 Moos(1993)의 이론적 가정과 달리 대안적 보상 추구 척도가 요인 1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더 좋은 일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등의 대안적인 행동에 관여하고 새로운 만족원을 찾으려는 인지적, 행동적 시도를 뜻하는 대안적 보상 추구 대처반응이 스트레스 사상이나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의 대처반응이 아니라 스트레스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거나 해결하려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의미하는 접근적 대처반응에 해당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결과는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요인구조를 연구한 Haman-Mansour 등(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999)

척도	요인 1	요인 2
논리적 분석(LA)	.661	.110
긍정적 재평가(PR)	.768	-.104
지도와 지지 추구(SG)	.569	.065
문제해결(PS)	.816	-.149
인지적 회피(CA)	-.037	.811
받아들이ム 또는 체념(AR)	-.102	.823
대안적 보상 추구(SR)	.638	.081
정서표출(ED)	.184	.567

주. 요인계수는 형태계수임.

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요인구조는 ‘접근적 대처반응’과 ‘회피적 대처반응’의 2요인 구조이고, ‘접근적 대처반응’ 요인은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 문제해결 및 대안적 보상 추구 척도, ‘회피적 대처반응’ 요인은 인지적 회피, 받아들이м 또는 체념 및 정서표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TLI(Turker-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에 근거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는데 일반적으로 TLI, NFI, CFI는 0.9 이상이면 수용할만한 기준이고, RMSEA는 0.10 이하이면 수용할만한 기준이다(Ruiz & Edens, 2008; 홍세희, 2000).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는 .882로 .90보다 약간 낮았으나 나머지 세 가지 적합도 지수는 모두 앞서 제시기준에 잘 부합되는 결과를 보였다(NFI=.092, CFI=.911, RMSEA=.088). 또한 수렴되는 요인으로의 요인부하량의 크기를 말

하는 표준화 요인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가 모두 유의($p < .05$)한 것으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설정한 요인구조 모형이 한국판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요인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렴과 변별 타당도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12가지 타당도지표와의 상관을 구하였다(표 6). 먼저 스트레스사상과 그 결과를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려는 인지적 시도를 측정하는 논리적 분석(LA) 척도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적극적 대처와 강한 정적 상관, 부인과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 다차원 대처척도 중 긍정적 해석, 적극적 대처와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 중 문제해결력, 학교적응력, 또래관계기술 지표와는 보통 정도의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특성을 재는 공격행동 지표와는 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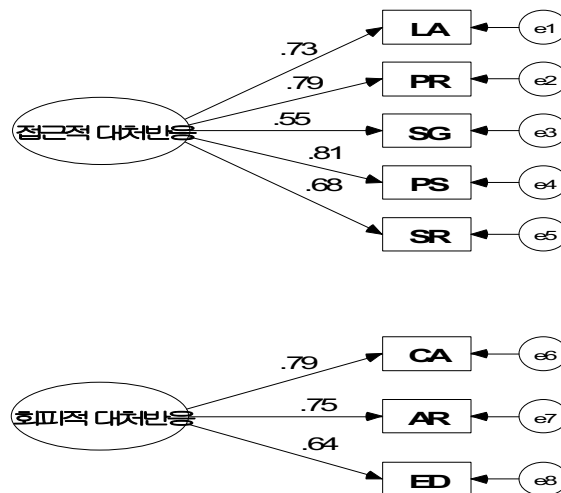


그림 1. 한국판 청소년 대처반응 검사의 요인구조 및 표준화 요인계수

표 6. 청소년용 대처반응 검사와 타당도지표의 상관

타당도지표	청소년 대처반응검사							
	LA	PR	SG	PS	CA	AR	SR	ED
스트레스 대처전략척도								
적극적 대처	.65	.67	.47	.60	.06	.00	.47	.10
사회적 지지 추구	.38	.54	.72	.47	.03	-.01	.39	.21
알코올 사용	.07	.10	.13	.20	.24	.20	.17	.12
자기 비난	.38	.08	.17	.22	.47	.52	.14	.45
부인	.44	.21	.25	.26	.57	.54	.23	.45
유머 사용	.14	.41	.35	.18	.21	.08	.28	.28
종교 추구	.25	.25	.21	.31	.13	.16	.19	.13
기분 전환	.35	.31	.19	.25	.45	.28	.39	.21
다차원 대처척도								
지원 추구	.34	.43	.81	.42	.06	.09	.34	.17
종교적 추구	-.02	.11	.17	.00	.15	.16	-.02	-.03
정서 표출	.01	.05	.11	.09	.21	.23	.11	.44
고집	.33	.17	.24	.42	.08	.02	.26	-.05
긍정적 해석	.59	.68	.58	.76	.02	-.09	.64	.01
적극적 망각	.24	.22	.33	.24	.41	.33	.31	.29
긍정적 비교	.43	.28	.26	.20	.23	.25	.10	.26
적극적 대처	.52	.67	.63	.76	-.12	-.08	.53	.04
체념	.25	.18	.14	.35	.39	.36	.15	.30
자기 비판	.36	.30	.23	.27	.18	.21	.13	.42
동화/양보	.23	.30	.39	.21	.19	.17	.34	.22
자제	.08	-.12	.04	.02	.09	.12	.04	.23
문제해결검사								
문제해결 자신감	.29	.44	.26	.35	-.32	-.30	.28	-.20
접근적 문제해결	.29	.50	.27	.32	-.13	-.26	.41	-.10
점근적 문제해결	.33	.32	.26	.34	-.17	-.08	.20	-.03
개인통제감	-.08	.08	-.01	.00	-.52	-.47	-.11	-.39
학 교 적 응 척 도								
또래관계기술척도	.24	.41	.32	.43	-.33	-.34	.31	-.06
주장성	.19	.39	.52	.34	-.08	-.16	.46	.27
협동/공감	.44	.45	.21	.42	.01	-.05	.39	.02
삶의만족도검사								
우울검사	.01	.30	.10	.15	-.14	-.29	.23	-.11
불안검사(RCMAS)								
과도한 걱정	.17	-.15	-.05	.04	.43	.57	-.12	.44
예민함	.18	-.14	-.10	-.02	.38	.44	-.09	.39
신체 수면상의 문제	.24	-.13	-.11	-.06	.28	.33	-.11	.22
낮은 자존감이나 불행감	.11	-.01	.00	.02	.26	.26	.03	.39
K-YSR 비행척도								
신체 수면상의 문제	.09	-.08	.02	.05	.21	.26	.02	.22
낮은 자존감이나 불행감	.07	-.22	-.18	-.10	.37	.46	-.19	.34
K-YSR 비행척도								
공격성	-.08	-.16	-.16	-.23	.30	.28	-.03	.26
공격성	-.10	-.09	-.03	.02	.02	.11	.09	.20
인터넷과다사용척도(K 척도)								
인터넷과다사용척도(K 척도)	.17	.02	.11	.15	.34	.43	.16	.39
생활스트레스척도								
생활스트레스척도	.06	-.11	.12	-.06	.42	.48	.09	.44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한 인지적 시도를 측정하는 긍정적 재평가(PR) 척도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적극적 대처와 강한 정적 상관, 사회적 지지 추구, 유머 사용과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 다차원적 대처척도 중 긍정적 해석, 적극적 대처와 강한 정적 상관, 지원 추구하고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 중 문제해결력, 학교적응력, 또래관계기술, 삶의 만족도 지표와는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 중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 스트레스 지표와는 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정보, 안내 또는 지지를 추구하기 위한 행동적 시도를 측정하는 지도와 지지 추구(SG) 척도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매우 강한 정적 상관, 적극적 대처와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 다차원적 대처 척도 중 지원 추구하고 적극적 대처와 강한 정적 상관, 긍정적 해석과는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 중 또래관계기술 지표와는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 문제해결력, 학교적응력 지표와는 보통 정도의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 중 불안, 비행 지표와는 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동적 시도를 측정하는 문제해결(PS) 척도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적극적 대처와 강한 정적 상관,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 다차원적 대처척도 중 적극적 대처, 긍정적 해석과 강한 정적 상관, 지원 추구, 고집과는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 중 학교적응력, 또래관

계기술 지표와는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 문제해결 지표와는 보통의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 중 비행 지표와는 보통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대안적인 행동에 관여하고 새로운 만족원을 찾으려는 행동적 시도를 측정하는 대안적 보상 추구(SR) 척도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기분 전환과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 다차원적 대처 척도 중 긍정적 해석과 강한 정적 상관, 적극적 대처와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 중 또래관계기술 지표와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 문제해결력, 학교적응력, 삶의 만족도 지표와는 보통의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 중 우울, 불안, 비행 지표와는 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인지적 시도를 측정하는 인지적 회피(CA) 척도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가운데 부인, 자기비난, 기분 전환과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 다차원적 대처척도 중 적극적 망각, 체념과는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 중 학교적응력, 또래관계기술 지표와는 보통의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 중 우울, 스트레스 지표와는 비교적 강한 부적 상관, 불안, 비행, 인터넷 과다사용 지표와는 보통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거나 체념하려는 인지적 시도를 측정하는 받아들이임 또는 체념(AR) 척도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가운데 부인, 자기 비난과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 다차원적 대처척도 중 체념, 적극적 망각과 보통의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긍정적 특성을 채는 지표 중 학교적응력, 또래관계 기술, 삶의 만족도 지표와는 보통의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특성을 채는 지표 중 우울, 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스트레스 지표와는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 비행 지표와는 보통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감소시키려는 행동적 시도를 측정하는 정서표출(ED) 척도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가운데 자기 비난, 부인과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 다차원적 대처척도 중 정서 표출, 자기 비난과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긍정적 특성을 채는 지표 중 문제해결 지표와는 보통의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특성을 채는 지표 중 우울, 불안, 스트레스 지표와는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 인터넷 과다사용 지표와는 보통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CRI-Youth의 8개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접근적 대처반응에 해당되는 논리적 분석(LA), 긍정적 재평가(PR), 지도와 지지 추구(SG), 문제 해결(PS), 대안적 보상 추구(SR) 척도는 문제 해결력, 학교 적응력, 또래관계 기술 및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특성을 채는 지표와 정적 상관, 우울, 불안, 비행 및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특성을 채는 지표와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회피적 대처반응에 해당되는 인지적 회피(CA), 받아들임 또는 체념(AR), 정서 표출(ED) 척도는 긍정적 특성을 채는 지표와는 부적 상관, 부정적 특성을 채는 지표와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강한 청소년과 우울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처반응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에서 건강한 청소년들이 접근적 대처반응을 주로 사용하는데 반해 우

울한 청소년들은 인지적 회피, 받아들임 또는 체념, 정서 표출의 세 가지 회피적 대처반응을 건강한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Ebata & Moose, 1992; Moos, 1993).

준거 타당도

문제해결력, 또래관계기술, 학교적응,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8개 척도점수가 변화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문제해결력, 또래관계 기술, 학교적응,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의 각 척도별 점수의 고저에 따라서 두 집단을 선정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각 척도별 점수의 고저 집단은 평균±1표준편차 이상(이하)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문제해결력, 또래관계기술, 학교적응,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점수의 고저 집단에 따른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8개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t값은 표 7, 8과 같다. 문제해결력의 고저 집단 간에는 8개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학교적응의 고저 집단은 대안적 보상 추구(SR)와 정서표출(ED)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또래관계기술의 고저 집단은 인지적 회피(CA)척도, 받아들임 또는 체념(AR)척도 및 정서표출(ED)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우울의 고저 집단 간에는 논리적 분석(LA) 척도, 인지적 회피(CA) 척도, 받아들임 또는 체념(AR) 척도 및 정서표출(ED) 척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불안의 고저 집단은 인지적 회피(CA) 척도, 받아들임 또는 체념(AR) 척도 및 정서표출(ED) 척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스트레스의 고저 집단은 긍정적 재평가(PR), 인지적 회피(CA) 척도, 받

표 7. 문제해결력, 또래관계기술, 학교적응의 정도에 따른 평균(SD)점수의 차이검증

척도	문제해결력			또래관계기술			학교적응		
	고 (n=25)	저 (n=35)	t	고 (n=22)	저 (n=24)	t	고 (n=22)	저 (n=35)	t
접근적 대처반응									
논리적 분석	10.58 (3.20)	8.31 (3.23)	2.66**	11.10 (3.88)	7.04 (2.97)	3.96***	10.59 (2.87)	8.82 (3.24)	2.08*
긍정적 재평가	10.16 (3.30)	6.00 (2.81)	5.26***	11.14 (3.40)	5.13 (2.93)	6.36***	10.00 (3.87)	6.77 (3.98)	3.02**
지도와 지지 추구	7.28 (4.29)	4.57 (3.83)	2.57*	7.59 (3.87)	2.48 (2.17)	5.49***	8.59 (3.84)	5.26 (3.78)	3.22**
문제해결	8.52 (3.22)	5.26 (3.35)	3.78***	9.43 (3.87)	4.33 (2.58)	5.26***	9.50 (4.43)	6.09 (3.15)	3.40**
대안적 보상 추구	9.79 (3.37)	6.83 (3.43)	3.28**	11.82 (3.17)	6.32 (2.87)	6.03***	9.23 (3.35)	7.77 (4.15)	1.38
회피적 대처 반응									
인지적 회피	5.32 (3.38)	8.69 (4.26)	-3.28**	5.95 (3.14)	6.74 (4.17)	-.71	4.55 (2.77)	8.14 (3.37)	-4.19***
받아들임 또는 체념	3.56 (2.22)	7.31 (3.98)	-4.26***	4.32 (2.75)	6.04 (3.65)	-1.79	3.48 (2.87)	6.69 (3.61)	-3.46**
정서표출(ED)	4.92 (7.06)	7.06 (4.32)	-2.18*	6.32 (3.11)	4.48 (3.50)	1.86	4.95 (2.73)	6.26 (3.05)	-1.61

* $p < .05$, ** $p < .01$, *** $p < .001$

아들임 또는 체념(AR) 척도 및 정서표출(ED) 척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해결력, 또래관계기술, 학교적응,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점수의 고저집단 간의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8개 척도점수의 평균점수의 차이검증 결과, 문제해결력, 또래관계기술, 학교적응과 같은 긍정적 특성과 관련된 점수가 높은 집단이 점수가 낮은 집단보다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 문제해결, 대안적 보상 추구 척도의 점수가 높은

반면에,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특성과 관련된 점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인지적 회피, 받아들임 또는 체념, 정서표출 척도의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적응수준이 높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들은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 문제해결, 대안적 보상 추구하고 같은 긍정적 대처반응을 많이 사용하고, 인지적 회피, 받아들임 또는 체념, 정서표출과 같은 부정적인 대처반응은 적게 사용하며, 적응수준이 낮고

표 8.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른 평균(SD)점수의 차이검증

척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		
	고 (n=23)	저 (n=24)	t	고 (n=28)	저 (n=24)	t	고 (n=28)	저 (n=28)	t
접근적 대처반응									
논리적 분석	10.26 (4.05)	8.13 (2.82)	2.11*	9.61 (3.84)	8.74 (2.58)	.93	9.33 (3.35)	9.64 (3.68)	-.33
긍정적 재평가	7.56 (4.48)	8.63 (3.29)	-.94	6.67 (4.10)	8.17 (2.96)	-1.48	7.46 (2.80)	9.57 (4.10)	-2.25*
지도와 지지 추구	5.96 (3.52)	6.04 (3.37)	-.08	5.82 (3.54)	6.96 (3.61)	-1.15	6.86 (3.40)	5.54 (3.61)	1.41
문제해결	7.76 (3.88)	7.16 (3.18)	.60	6.68 (3.74)	7.25 (3.45)	-.57	7.11 (3.24)	8.14 (4.04)	-1.06
대안적 보상 추구	6.88 (3.49)	7.54 (3.51)	-.66	6.71 (3.18)	7.83 (3.51)	-1.21	8.93 (2.23)	9.07 (3.20)	-.19
회피적 대처 반응									
인지적 회피	8.32 (4.41)	4.24 (2.99)	3.83***	7.68 (3.66)	4.42 (2.87)	3.53**	8.32 (2.74)	4.62 (2.61)	5.09***
받아들임 또는 체념	8.56 (3.20)	3.04 (2.91)	6.38***	7.25 (2.91)	3.33 (3.17)	4.64***	7.71 (3.18)	2.93 (2.16)	6.58***
정서표출(ED)	8.68 (3.72)	4.28 (3.81)	4.13***	8.11 (3.49)	4.41 (3.51)	3.79***	8.46 (3.69)	3.75 (3.22)	5.10***

* p<.05, **p<.01 ***p<.001

심리적 불편감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대처반응을 많이 사용하고 긍정적 대처반응은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

8개 척도점수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성별; 남, 여) × 2(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이원변량분석(2-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 받아들임 또는 체념 및 정서표출의 5개 척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의 접근적 대처반응에 해당되는 세 척도 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회피적 대처반응 중 받아들임 또는 체념 척도 점수는 남학생, 정서표출 척도 점수는 여학생이 높았다. 한편 학교급에 따른

표 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대처반응검사 척도점수의 평균(SD)과 변량분석 결과

척도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F 검증		
	남 (n=257)	여 (n=274)	전체 (n=531)	남 (n=208)	여 (n=260)	전체 (n=468)	남 (n=465)	여 (n=534)	성 (A)	학교급 (B)	A×B
접근 반응											
논리적 분석	8.61 (3.20)	9.08 (3.11)	8.86 (3.16)	9.25 (3.09)	9.64 (2.77)	9.47 (2.92)	8.88 (3.17)	9.33 (2.97)	4.05*	7.94**	.04
긍정적 재평가	7.13 (3.31)	7.83 (3.36)	7.50 (3.35)	8.16 (3.39)	8.44 (3.45)	8.32 (3.43)	7.64 (3.43)	8.12 (3.41)	4.31*	12.72***	.79
지도와 지지 추구	4.44 (3.41)	6.31 (3.99)	5.42 (3.84)	5.32 (3.78)	6.96 (3.82)	5.81 (3.88)	4.86 (3.59)	6.64 (3.92)	45.32***	8.60**	.19
문제해결	6.59 (3.27)	7.04 (3.43)	6.82 (3.56)	7.17 (3.63)	7.00 (3.20)	7.07 (3.39)	6.89 (3.42)	7.07 (3.29)	.37	1.36	1.77
대안적 보상 추구	8.14 (3.34)	7.84 (3.19)	7.99 (3.26)	8.01 (3.18)	7.94 (2.88)	7.98 (3.14)	8.11 (3.28)	7.88 (3.03)	.72	.01	.29
회피 반응											
인지적 회피	6.00 (3.53)	5.93 (3.35)	5.97 (3.43)	6.97 (3.61)	6.17 (3.34)	6.22 (3.47)	6.50 (3.59)	6.07 (3.30)	3.37	6.29***	2.34
받아들임 또는 체념	5.23 (3.42)	4.71 (3.22)	4.96 (3.32)	5.71 (3.28)	5.00 (3.25)	5.12 (3.30)	5.46 (3.39)	4.82 (3.20)	7.27**	2.75	.18
정서표출	4.60 (3.03)	5.82 (3.13)	5.24 (3.14)	5.39 (3.19)	6.51 (3.11)	6.03 (3.19)	4.94 (3.16)	6.15 (3.09)	29.20***	11.68**	.00

*p<.05, **p<.01, ***p<.001

차이에서는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 인지적 회피 및 정서표출의 5개 척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의 접근적 대처반응에 해당되는 척도 점수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고, 회피적 대처반응 중 인지적 회피 척도 점수는 중학생, 정서표출 척도 점수는 고등학생이 높았다. 성별과 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는 8개 척도 점수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에 따른 차이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 집단에 따른 청

소년 대처반응검사의 8개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0).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 집단에 따른 대처반응의 차이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8개 척도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며 이들 8개 척도점수 모두 일반 청소년집단이 비행 청소년집단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사상에 대한 대처반응이 매우 부정적이고 미숙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인 대처행동 자체를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0. 일반 청소년집단과 비행 청소년집단의 척도점수 평균의 차이검증 결과

척도	집단	<i>M</i>	<i>SD</i>	<i>df</i>	<i>t</i>	<i>p</i>
접근 반응						
논리적 분석	일반 청소년	9.12	3.07	1397	6.81***	.000
	비행 청소년	7.94	3.24			
긍정적 재평가	일반 청소년	7.90	3.43	1396	4.71***	.000
	비행 청소년	7.01	3.36			
지도와 지지 추구	일반 청소년	5.82	3.87	1405	2.03*	.042
	비행 청소년	5.40	3.60			
문제해결	일반 청소년	6.96	3.35	1402	2.51*	.012
	비행 청소년	6.49	3.31			
대안적 보상 추구	일반 청소년	7.99	3.14	1405	2.09*	.036
	비행 청소년	7.61	3.42			
회피 반응						
인지적 회피	일반 청소년	6.27	3.46	1409	2.18*	.029
	비행 청소년	5.86	3.20			
받아들임 또는 체념	일반 청소년	5.12	3.30	1407	2.76**	.006
	비행 청소년	4.62	4.20			
정서표출	일반 청소년	5.59	3.18	1407	2.03*	.043
	비행 청소년	5.23	3.17			

*p<.05, **p<.01, ***p<.001

논 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인 대처반응은 인간의 복지와 정신적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지만 대처능력이 떨어질 경우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Abramovitch, Schreier & Koren, 2000). 그리고

스트레스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당면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 지가 부적응의 치료나 예방적 개입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이후의 적응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문성원, 한종철, 1996). 또한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과 우울, 불안 및 품행장애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 간의 대처 반응의 차이를 연구들에서 두 집단 간에 주로 사용하는 대처반응에의 차이가 있고(Moos,

1993; Moos & Schafer, 1993; Schaefer & Moos, 1992), 상담 및 심리치료를 종결한 청소년에 대한 추적연구에서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대처반응의 유형이 상담 및 치료의 성과를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Ebata & Moos, 1992).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발달과정에서 신체적·인지적·사회정서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처반응 유형을 쉽고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대처반응검사들은 정서 지향-문제 지향적 대처반응 또는 접근-회피적 대처반응과 같이 대처반응을 지나치게 단순화 했거나 대처반응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배경이 확실하지 않은 채 개발된 경우도 있으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고등학생 모두가 아닌 중학생용 또는 고등학생용만으로 개발된 경우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대처반응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사상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향에 따라 접근과 회피 반응, 실제로 사용한 대처 방법에 따라 인지적 행동 반응이라는 이들 두 가지 개념적 접근을 조합하여 청소년의 대표적 대처반응을 8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처반응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검사인 Moos(1993)의 CRI-Youth를 우리나라 청소년 실정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는 한국판 CRI-Youth를 개발하고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999명을 일반 청소년 표본, 보호관

찰소에 수감명령 중인 청소년 520명을 비형 청소년 표본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8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62~.83의 범위에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Moos(1993)가 미국 청소년 400명(남 179명, 여 221명)에서 얻은 .55~.79 범위의 내적 합치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6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9~.75의 범위에 있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Moos(1993)가 12~15개월 간격으로 실시한 8개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평균인 .29(남), .34(여)와 비교해 볼 때 검사-재검사 간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점수가 시간적 변화에 안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인지적 회피와 정서표출 척도점수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남자 청소년이 .46, .39로 여자 청소년의 .27, .27보다 더 안정적이었고, 이와 반대로 논리적 분석과 지도와 지지추구의 척도점수는 여자 청소년이 .31, .41로 남자 청소년의 .17, .22 보다 다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경우 성별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여도 잘 변하지 않는 대처반응 유형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쉽게 변하는 대처반응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대처반응의 안정성은 우울한 성인과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1~2년 간격으로 조사한 결과(Billings & Moos, 1985; Fondacaro & Moos, 1987, 1989; Holahan & Moos, 1987)보다 다소 낮았는데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

년의 대처척도 점수의 안정성이 다소 낮은 이유는 성인보다 발달적 변화가 심하고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판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구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접근적 대처반응과 회피적 대처반응의 2요인 구조가 지지되었고,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 문제해결 및 대안적 보상 추구 척도는 접근적 대처반응 요인, 인지적 회피, 받아들임 또는 체념 및 정서표출 척도는 회피적 대처반응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청소년 대처반응과 관련된 기존의 여러 지표들과 교우관계문제검사 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 문제해결, 대안적 보상 추구 척도점수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공격행동, 인터넷 과다사용, 분노표현과 같은 부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부적 상관, 문제해결력, 학교적응, 또래관계기술,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인지적 회피, 받아들임 또는 체념, 정서표출 척도점수는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부적 상관, 부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정적 상관이 있기에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수렴과 변별 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문제해결력, 또래관계기술, 학교적응,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8개 척도점수가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문제해결력, 또래관계 기술, 학교적응,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의 각 척도별 점수의 고저에 따라서 두 집단을 선정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

시한 결과, 문제해결력, 또래관계기술, 학교적응과 같은 긍정적 특성과 관련된 점수가 높은 집단이 점수가 낮은 집단보다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 문제해결, 대안적 보상 추구 척도의 점수가 높은 반면에,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특성과 관련된 점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인지적 회피, 받아들임 또는 체념, 정서표출 척도의 점수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적응수준이 높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들은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 문제해결, 대안적 보상 추구하고 같은 접근적 대처반응을 많이 사용하고, 인지적 회피, 받아들임 또는 체념, 정서표출과 같은 회피적 대처반응은 적게 사용하며, 적응수준이 낮고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와 반대로 회피적 대처반응을 많이 사용하고 접근적 대처반응은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며 한국판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준거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척도의 8개 척도점수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성별; 남, 여) × 2(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 받아들임 또는 체념 및 정서표출의 5개 척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의 접근적 대처반응에 해당되는 척도 점수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회피적 대처반응 중 받아들임 또는 체념 척도 점수는 남학생, 정서표출 척도 점수는 여학생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접근적 대처반응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으로

Moos(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서는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 인지적 회피 및 정서표출의 5개 척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와 지지 추구의 접근적 대처반응에 해당되는 척도 점수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고, 회피적 대처반응 중 인지적 회피 척도 점수는 중학생, 정서표출 척도 점수는 고등학생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연령이 증가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하면서 접근적 대처반응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대처반응검사가 척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성별, 학년별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에 성별과 학년에 따른 별도의 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점수가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8개 척도들 중에서 지도와 지지 추구 척도를 제외한 7개 척도에서 일반청소년 집단과 비행청소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이들 7개 척도점수 모두 일반 청소년집단이 비행 청소년집단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사상에 대한 대처반응이 매우 부정적이고 미숙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인 대처행동을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의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비행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과 달리 별도의 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청소년 대처반응검사는

내적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구인타당도,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및 준거 타당도 측면에서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검사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처반응 유형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검사를 두 번 사용하여 수검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대처방식과 선호하는 대처방식을 파악할 수 있기에 상담 및 프로그램 평가, 임상적 사례 기술, 치료계획 수립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청소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 및 의학적 질병을 가진 청소년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학교상담 장면이나 심리적·교육적 개입이 필요한 장면에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 두 집단 간의 대처반응의 차이는 검증하였지만 병원장면이나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자료는 수집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병원장면이나 심각한 심리적 장애 등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처반응검사의 타당도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최종 척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표집과정에서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비행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에 대한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표집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추가로 자료를 더 수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

서 초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결과와 교차타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교현, 전검구 (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척도의 개발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97-217.
- 김용래 (2000). 학교학급동기척도와 학교적응척도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 분석. 교육연구논의, 17, 3-37.
- 김정수 (2008). 위험사건의 통제가능성 지각에서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와 이점발견의 매개역할.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청택 · 김동일 · 박중규 · 이수진 (2002). 인터넷중독척도 개발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문성원, 한종철 (1996).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7(2), 233-246.
- 박용천, 김광일 (2000). 한국 고등학생에 대한 스트레스상황 대처검사(CISS: Coping Inventory for Stressful Situation)의 타당도 평가. 신경정신의학, 39, 55-64.
- 배유진, 홍상환 (2009). 아동우울척도의 구성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265-289.
- 양윤란, 오경자 (200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961-971.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전아, 김영환 (2001). 다차원적 대처척도에서 본 성격특성과 대처방식과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551-567.
- 이은주 (1998).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8, 115-137.
- 임현우, 이동귀, 박현주 (2004). 한국판문제해결 질문지. 한국상담심리학회 Dr. Heppner 초청 특별심포지움 발표논문.
- 장휘숙 (2002). 청소년용 공격행동척도의 타당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81-96.
- 전검구 (1996).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연구 (II). 재활심리연구, 3, 53-59.
- 전검구, 강혜자, 류준범 (2000). 우울과 건강간의 관계: 남녀 비교를 중심으로. 건강심리학회 동계학술 발표대회 및 workshop자료집.
- 전검구, 김교현,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1994).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1), 114-135.
- 전검구, 김동연, 이준석 (2000).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개발 연구: IV. 미술치료연구, 7, 33-50.
- 정주리 (2007). 의미발견을 통한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4), 1309-1321.
-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 불안의 측정: 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3), 691-702.

- 한건환, 장휘숙, 안권숙 (2004).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방식 및 문제 행동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1(3), 385-402.
- Abramovitch, H., Schreier, A., & Koren, N. (2000). American medical students in Israel: Stress and coping a follow-up study. *Medical Education*, 34, 890-896.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guilar-Vafaie ME, Abiari M. (2007). Coping Response Inventory: Assessing coping among Iranian college students and introductory development of an adapted Iranian Coping Response Inventory(CRI). *Mental Health, Religion and Culture* 10(5), 489-513.
- Billings, A., & Moos, R. (1985).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affect posttreatment outcomes among depressed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140-153.
- Carver, C. S. (1997). You want to measure coping but your protocol's too long: consider the brief COP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92-100.
- Castenada, A., McCandless, B. R., Palermo, D. S. (1956). The children's form of the Manifest Anxiety Scale. *Child Develop*, 27(3), 317-326.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and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merci, G. D., & Macdonald, D. I. (1990). Prevention of substance abus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dolescent Medicine: State of the Art Reviews*, 1, 127-143.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r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Dumont, M., Provost, A. M.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3), 343-363.
- Ebata, A., & Moos, R. (1992). *Personal, situational, and contextual correlates of coping in adolescence*. Urbana, IL: School of Human Resources and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Illinois.
- Felton, B. J., & Revenson, T. A. (1984). Coping with chronic illness: A study of illness controllability and the influence of coping strategies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343-353.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olkman, S., and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s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Fondacaro, M., & Moos, R. (1987). Social support

- and coping: A longitudin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 653-673.
- Fondacaro, M., & Moss, R. (1989). Life stressors and coping: A longitudinal analysis among depressed and nondepressed adul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 330-340.
- Hamdan-Mansour, A., Kim, Y., Puskar, K., & Amre, H. (2008). Psychometric properties of coping response inventory-youth form.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9(4), 371-385.
- Heppner, P. P., & Peterse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66-75.
- Holahan, C. J., & Moos, R. (1987). Risk, resistan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analysis with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3-13.
- Kliewer, W. (1991). Coping in middle childhood: Relations to competence, type a behavior, monitoring, blunting, and locus of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89-69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ohman, B. J., & Jarvis, P. A. (2000). Adolescent stressors,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health studied in the family contex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15-43.
- Moos, R. (1988). Life stressors and coping resources influence health and well-being. *Psychological Assessment*, 4, 133-158.
- Moos, R. (1993). *Coping Responses Inventory Youth Form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Moos, R., Brennan, P., Fondacaro, M., & Moos, B. (1990). Approach and avoidance coping responses among older problem and nonproblem drinkers. *Psychology and Aging*, 5, 31-40.
- Moos, R., & Schaefer, J. (1993).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Current concepts and measures. In L. Goldberger &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Second Edition). New York: MacMillan.
- Orpinas, P., & Frankowski, F.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1-68.
- Reynolds W. M. (1982). Development of valid and reliable short forms of the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119-125.
- Reynolds, C. R., & Richmond, B. O. (1978). What I think and feel. 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 of Abn Child Psychol* (2), 271-280.
- Rohde, P., Lewinsohn, P. M., Tilson, M. D., & Seeley, J. R. (1990). The dimensionality of coping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499-511.
- Roth, S., & Cohen, L. J.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 Schaefer, J., & Moos, R. (1992). Life crises and personal growth. In B. N. Carpenter(Ed.), *Personal cop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150-170). New York: Praeger.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247.
- Thissen, D., Chen, W. H., & Bock, D. (2003). *MULTILOG 7*. Lincolnwood, IL: SSI.
- Unger, J. B., Kipke, M. D., Simon, T. R., Johnson, C. J., Montgomery, S. B., & Iverson, E.(1998). Stress, Coping, and social suport among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2), 134-157.
- Veenhoven, R., & Piet, O. (1995). Livability of the welfare-sta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6, 95.
- 원 고 접 수 일 : 2011. 10. 07.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2. 16.
최종게재결정일 : 2011. 12. 20.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Coping Response Inventory for Youth

Sang-Hwang Hong

Dept.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yun-Sil Yu

Munseon Elementary School

The present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Coping Response Inventory for Youth(CRI-Youth) developed by Moos(1993). For the current study, inventory items were cull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the American Coping Response Inventory for Youth(CRI-Youth), and a survey of Korean adolescent coping. The preliminary items for each scale were administered to 205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high school students and then selecting the final 48 items. In order to check on reliability, internal consistency, convergence and discrimination reliability of the final items and scal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999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high school students.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ternal consistency of the coping response inventory showed the range between .62-.83, and test-retest reliability between .59-.75. The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indicate that the scale consists of 2 factor: Approach coping and Avoidance coping and regarding correlations between various existing indices and scales related to 8 scale scores, both convergence reliability and discrimination reliability were found to be fair.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CRI-Youth will be useful in school and counseling practice.

Key words : coping response inventory, adolescents, reliability, validity

부록. 청소년 대처반응검사 예비척도의 문항양호도 관련 통계치

(N=205)

척도명/문항	문항 변별도	상관 계수	제거 지수
논리적 분석(LA)			
자신이 처한 문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해보았습니까?	2.06	.583	.678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1.65	.503	.697
그 문제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1.40	.483	.702
그러한 문제가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럴만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1.31	.452	.70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1.25	.443	.711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는 편입니까?	.96	.364	.728
그 문제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서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 하였습니까?(*)	.91	.346	.732
긍정적 재평가(PR)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해보았습니까?	1.81	.523	.641
자신이 처한 문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였습니까?	1.56	.499	.650
자신의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였습니까?	1.45	.466	.657
그 상황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까?	1.38	.484	.651
그 문제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까?	1.26	.449	.660
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들보다 내 처지가 더 낫다고 계속 생각해보았습니까?	.84	.321	.693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까?(*)	.41	.174	.730
지도와 지지 추구(S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까?	3.25	.689	.806
자신이 처한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까?	2.65	.718	.804
그 문제에 대해 친구와 의논하였습니까?(*)	2.31	.626	.813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나 또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까?	2.07	.569	.820
내 말이나 심정을 들어 줄 사람을 찾아보았습니까?	1.96	.657	.810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하였습니까?	1.57	.572	.820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기를 원했습니까?(*)	.90	.390	.840
선생님, 상담자, 의사 또는 성직자와 같은 주위의 어른들과 의논하였습니까?	.89	.390	.837
그 문제에 대해 부모 또는 다른 가족과 의논하였습니까?(*)	.75	.355	.843

문제 해결(PS)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습니까?	2.36	.648	.80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2가지의 다른 방법을 사용해보았습니까?(*)	2.08	.612	.807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까?	1.75	.574	.81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았습니까?	1.70	.577	.81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1.58	.548	.81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대로 해보았습니까?	1.52	.525	.818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1.41	.499	.821
하루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	1.41	.508	.821
인지적 회피(CA)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까?	1.58	.494	.681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잊으려고 하였습니까?	1.33	.446	.672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까?	1.30	.436	.684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하고 생각하였습니까?	1.26	.455	.678
혼란스러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1.21	.421	.685
문제가 없어지거나 어떻게든 끝나기를 원했습니까?(*)	1.02	.394	.690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도 미루었습니까?	.92	.346	.699
평소보다 잠을 더 많이 잤습니까?(*)	.67	.283	.714
문제들이 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였습니까?(*)	.63	.244	.715
받아들임 또는 체념(AR)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잃었습니까?	1.91	.485	.626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1.76	.492	.62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1.43	.418	.641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끔끔 앓았습니까?	1.09	.396	.644
어차피 결과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였습니까?	1.02	.370	.651
가장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였습니까?	.82	.329	.663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까?(*)	.73	.289	.672
더 작은 것에 만족하려고 하였습니까?(*)	.48	.220	.682

부록. 청소년 대처반응검사 예비척도의 문항양호도 관련 통계치

(N=205) (계속)

척도명/문항	문항 변별도	상관 계수	제거 지수
대안적 보상 추구(SR)			
다른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까?	.259	.573	.606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까?	.187	.505	.619
운동, 놀이, 쇼핑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였습니까?	.102	.401	.646
전혀 다른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까?	.94	.387	.650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생활이나 다른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였습니까?	.92	.340	.660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였습니까?	.88	.344	.659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였습니까?(*)	.64	.223	.689
즐거움을 얻기 위해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었습니까?(*)	.60	.245	.684
정서 표출(ED)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했습니까?	2.78	.545	.706
화가 났을 때 남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까?(*)	1.98	.456	.718
화를 풀려고 욕을 하거나 고함을 쳤습니까?	1.54	.473	.714
기분을 풀기 위해 울었습니까?	1.10	.477	.713
다른 사람 모르게 울었습니까?	1.09	.460	.715
기분을 풀기 위해 음식을 먹었습니까?	.98	.434	.720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시껄렁한 일을 하였습니까?	.85	.358	.731
기분을 풀기 위해 음악을 들었습니까?(*)	.64	.334	.735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스틸 있는 일을 하였습니까?(*)	.61	.297	.738
기분을 풀기 위해 컴퓨터나 닌텐도 등을 하였습니까?(*)	.50	.268	.747

주 1. 하위 척도별 문항변별도의 크기순으로 제시하였음.

주 2. (*)표시한 문항은 문항 양호도가 좋지 않거나 다른 문항과 의미가 중복되어 최종 척도 구성에서 제외된 문항임.